



I was the 6th child (5th daughter) born to Frances and William Hanlon. I grew up in Needham, Massachusetts, St. Joseph Parish, and attended wonderful public schools. Our Sister Florence Marie came to Boston to recruit students for Seton Hill College and I was smitten when she talked about the chapel. In September I boarded a train to Greensburg with two suitcases and no idea of how God would call me forward.



In spite of friends warning me convent life would be dull, after 65 years I have yet to be bored! As a postulant I was missioned to De Paul School for the deaf and the blind for 7 years while earning an MA from Smith College. Then I was sent to Duquesne University for 3 years for formation ministry. While studying I developed the Affiliate Program to assist those discerning a vocation and the Intercommunity Formation Program for women and men entering ours and other congregations. From 1977-81 I served on the General Council and had a chance to visit Korea for the first time - a real treat.

In 1981 Bishop Gaughan, of the Greensburg Diocese, encouraged me to become a hospital chaplain and I did a year's residency in a trauma center. I was hired as a Director of Pastoral Care in Marshfield, Wisconsin, VP of Chaplaincy in New Jersey, Director of Pastoral Care and Ethics in Nashville, Tennessee; Director of Pastoral Care, Language Services, and the Human Resources in New Haven, Connecticut. During all these years I was gifted with living/working with our Sisters but also with communities in other states. After 10 ½ years I was elected to the Provincial Council and at the end of that term Berkshire Medical Center surprised and challenged me to return as a chaplain in a public hospital where I minister with the sick and the dying. During these years many women – and a few men – became members of Seton Family in Connecticut and Massachusetts.



When age, illness and common sense encouraged me to reduce work to 3 days a week, I was hired by a nursing home and then Berkshire Medical Center in Pittsfield, Massachusetts, my home state. All this began

when my college roommate asked me to go with her to talk to Sister Aloysia about her entering the convent. Guess what? She married, had four children, and I became a Sister of Charity - waiting to be bored. Indeed, God has a sense of humor!





저는 어머니 프랜시스 Frances, 아버지 윌리엄 헨론 William Hanlon 슬하에 여섯째, 딸로는 다섯째로 태어났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니덤 Needham에서 자라면서 성 요셉 본당과 좋은 공립학교에 다녔습니다. 어느 날, 사랑의 씨튼 수녀회 플로렌스 마리 Florence Marie 수녀님이 씨튼힐 대학 신입생을 모집하러 보스턴에 오셨습니다. 수녀님이 씨튼힐 성당에 관해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고는 제 마음을 쏙 빼앗겼지요. 그래서 9월에 가방 두 개를 들고 그린스버그로 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저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친구들이 수녀원 생활은 지루할 거라고 말렸지만 6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지루하지 않답니다! 청원자 때 청각 및 시각 장애인을 위한 드 폴 학교 De Paul School for the deaf and the blind에 파견받아 7년 동안 사도직을 하면서 스미스 대학 Smith College에서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러고는 양성 사도직을 위해 3년간 듀케인 대학교 Duquesne University에 다녔습니다. 이때 공부하면서 성소 식별을 하는 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지원자 프로그램과 우리 수녀회와 다른 수도회에 입회하는 남녀 입회자를 위한 수도회간 공동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1977년부터 1981년까지는 수녀회 이사회에서 봉사하면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정말 기뻐요!

1981년, 그린스버그교구 거간 Gaughan 주교님이 저에게 병원 원목을 해보라고 권유하셔서 1년 동안 외상 센터에서 레지던트를 했습니다. 이후에 위스콘신주 마쉬필드에서 사목적 돌봄 담당자, 뉴저지주에서 원목 부책임자, 테네시주 내쉬빌에서 사목적 돌봄과 윤리 담당자,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서는 사목적 돌봄, 언어 서비스, 인사 담당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 수녀님들뿐 아니라 다른 주에 있는 여러 공동체에서 살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이 큰 선물이었지요. 십 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저는 미국관구 이사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끝나자 놀랍게도 버크셔 메디컬 센터 Berkshire Medical Center에서 저에게 환자와 임종을 앞둔 이들과 함께 일하는 공립병원 원목으로 다시 돌아와 일해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동안 많은 여성과 남성 몇 분이 코네티컷과 매사추세츠에서 씨튼 가족이 되었어요.

제 나이와 건강 상태, 사회 통념에 따라 일주일에 3일만 일을 하게 되면서, 제 고향 매사추세츠주 피츠필드에 있는 영양원과 버크셔 메디컬 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대학시절 제 룸메이트가 수녀원 입회에 관해 알로이시아 Aloysia 수녀님에게 이야기하러 가면서 저에게 같이 가달라고 한 데서 시작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그 친구는 결혼해서 자녀가 네 명이나 있고, 저는 아직까지 지루할 틈도 없는 사랑의 수녀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참 재미있으시지요!

